

금속 우라늄과 UO₂ 펠렛의 침출특성에 관한 연구

김승수 · 전관식 · 강철형

한국원자력연구소

I. 서론

원자력발전후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리튬으로 환원시켜 우라늄 금속봉 형태로 canister에 저장하려는 새로운 개념의 관리공정이 연구되고 있다. 이 공정은 기존의 세라믹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여 부피를 줄이고, 세슘과 같은 고방열성 핵종들을 선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2]. 그러나 이때까지 많이 연구되어 온 사용후핵연료의 침출시험과는 달리 우라늄 외에 핵물질 및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고 있는 금속전환체의 내부식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우라늄 금속, UO₂ 펠렛 및 50GWd/tU의 연소도를 갖는 사용후핵연료에 해당하는 금속전환체의 모의 시편을 속스렛 장치로 침출시켜 그들의 침출특성을 상호비교하고자 하였다.

II. 실험

시편들의 침출특성을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M-Tops사 속스렛 장치를 이용하여 침출시험을 1, 3, 7일간 실시하였다. 사용한 시편은 순수한 우라늄 금속(U-시편)과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사용전 핵연료 펠렛(UO₂-시편) 및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 공정개발실에서 제조한 50GWd/tU의 연소도에 해당하는 모의 금속전화체 시편(50GWd시편)[2]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편들의 무게와 표면적 및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침출액으로는 Millipore 3차 증류장치를 통과한 18 MΩ/cm 이상의 증류수 250 ml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시편과 접한 물의 온도는 약 70°C를 유지하였다.

Table 1. Compositions, weights and surface areas of specimens

Specimen	Surface Area (cm ²)	Weight (g)	Composition (wt.%)									
			U	Ce	Nd	Zr	Mo	Ru	Pd	Ba	Sr	La
U-metal	3.61	4.4226										
UO ₂	3.58	3.2761										
50GWd	8.62	20.1778	95.91	1.15	0.79	0.51	0.47	0.46	0.20	0.20	0.15	0.16

침출시험이 1, 3, 7일이 경과한 후 각각 5 ml씩의 용액을 채취하였으며, 시료용액중의 원소가 시료용기벽에 흡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한 질산을 10 μl를 가하였다. Pyrex 유리재질의 속스렛 장치로부터 침출되는 바탕세기를 알기 위하여 시편없이 동일조건으로 실험하여 이 값을 시편의

침출 성분으로부터 보정하였다. 또한, 중류수로 속스렛 장치를 세척하여 시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입자를 제거한 후, 용기벽에 흡착된 원소들을 탈착시키기 위하여 0.1M 질산용액 20 ml로 3시간동안 세척하였다. 실험과정에서 채취한 용액중의 원소들을 ICP-MS(Inductively Coupled Plasma - Mass Spectrometry)로 분석하였으며, 실험 전후 시편의 표면상태를 EPMA(Electron Probe Micro-Analyzer)로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토의

7일간 침출시험후 시편의 무게변화를 측정한 결과, U-시편, UO_2 -시편, 50GWd시편의 경우 각각 0.0209, 0.0000, 0.0016 g의 무게감소를 나타내었다. U-시편의 커다란 무게감소는 침출시험중 시편으로부터 시편주위의 침출액중으로 미세한 우라늄 입자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용액중에서 우라늄 금속표면이 산화되어 상변이를 일으켜 시편으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UO_2 -시편, 50GWd시편에서는 수용액중 우라늄 입자가 관찰되지 않았다. UO_2 -시편의 경우는 무게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우라늄의 용해가 다른 시편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액중에서 UO_{2-x} 형태로 산화가 일어나 무게가 소량 증가했을 가능성[3]도 배제할 수 없다.

1, 3, 7일동안 침출시험한 후 채취한 시료용액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바탕세기를 뺀 시편으로부터 침출된 성분들의 함량과 우라늄의 침출속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용액중 우라늄의 침출속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4].

$$R = C \cdot V / M A F$$

R: Dissolution rate of U ($\text{g}/\text{cm}^2/\text{day}$) C: Conc. of U in water V: Volume of water

M: Mass of test specimen

A: Specific surface area (cm^2/g)

F: Conc. of U in test specimen

Table 2. The amount of components released from specimens for 1, 3 and 7days

Time (day)	specimen	U	Ce	Nd	Zr	Mo	Ru	Pd	Ba	Sr	La	U-release rate ($\mu\text{g}/\text{cm}^2/\text{day}$)
		(μg)										
1	UO ₂	22.3										2.94
	U-metal	84.2										23.33
	50GWd	58.0	18.8	36.1	0.070	9.51	0.030	0.048	1.86	0.32	6.28	16.90
3	UO ₂	29.3										1.29
	U-metal	262.1										27.45
	50GWd	138.0	40.6	73.9	0.026	4.19	0.082	0.160	4.72	0.28	13.3	13.40
7	UO ₂	32.8										0.62
	U-metal	205.0										9.20
	50GWd	256.7	96.3	188.4	1.49	7.39	0.197	0.640	9.02	0.41	36.7	10.68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일동안의 속스렛 장치에 의한 침출률은 U-시편, 50GWd시편, UO_2 -시편의 경우 각각 9.20, 10.68, 0.62 $\mu\text{g}/\text{cm}^2/\text{day}$ 로서, UO_2 -시편은 다른 두 시편에 비해 훨씬 작게 나타났다. 또한, 용액중 미세입자가 발견되지 않은 50GWd시편과 UO_2 -시편의 경우 1, 3, 7일동안의 우라늄 침출률을 비교할 때 침출시간에 따라 침출속도가 감소하였다.

Table 3. Ratio of components released from 50GWd specimen for 1, 3, 7 days

Time (day)	U	Ce	Nd	Zr	Mo	Ru	Pd	Ba	Sr	La
1	1.8E-5	5.0E-4	1.4E-3	<1E-5	6.2E-4	<1E-5	<1E-5	2.9E-4	6.4E-5	1.2E-3
3	4.4E-5	1.0E-3	2.8E-3	<1E-5	2.7E-4	<1E-5	2.5E-5	7.1E-4	5.6E-5	2.6E-3
7	8.1E-5	2.5E-3	7.2E-3	8.8E-5	4.2E-4	1.2E-5	1.0E-4	1.3E-3	8.2E-5	7.6E-3

원소별 상대적인 침출성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50GWd 침출액으로부터 계산한 원소의 분율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이 표로부터 Mo, Nd, La, Ce, Ba은 Zr, Ru, Pd, U 보다 쉽게 침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침출전후의 시편표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EPMA로 측정하였는데, 얻어진 전자주사현미경의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U-시편은 침출후 표면에 침상모양의 입자가 발견되었으나,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과 산소 이외의 다른 원소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 50GWd시편은 침출후 표면에 국부적으로 Ce과 Nd가 농축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원소가 시편제조시 우라늄과 잘 용해되지 않고 석출되는 성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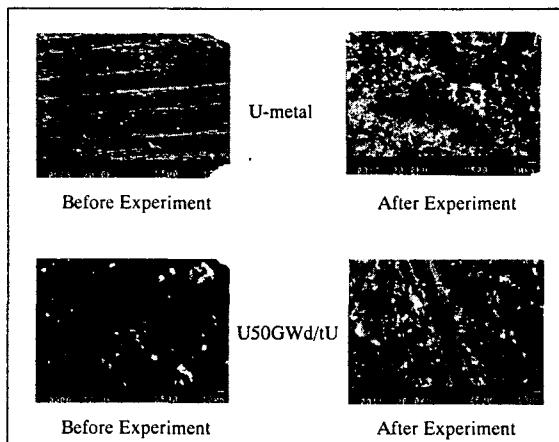


Fig. 1. Comparison of SEM images between before and after leaching experiment.

IV. 결론

7일동안 속스렛 장치를 이용한 조사전 UO_2 웨렛, 우라늄 금속 및 50GWd/tU의 연소도를 갖는 모의 금속전환체 시편의 침출률은 각각 0.62, 9.20, 10.68 $\mu\text{g}/\text{cm}^2/\text{day}$ 로 나타났으며, 침출속도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시편중에 함유된 Mo, Nd, La, Ce, Ba은 Zr, Ru, Pd, U보다 많이 침출되었으며, 침출된 시편의 표면에서 Ce과 Nd가 농축된 부분이 국부적으로 발견되었다.

참고문헌

- 1) 이윤상 외 : 사용후핵연료 금속저장봉의 연속주조 방안 연구, 한국원자력학회지, 2000년 추계학술 발표회 논문집 (2000).
- 2) 주준식, 유길성, 이은표, 신영준 : 9종 핵분열생성물 포함 모의금속전환체의 공기중 산화속도, 한국원자력학회지, 2000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0).
- 3) Gray,-W.J., Thomas,-L.E., Einziger,-R.E. : Dissolution rates of as-received and partially oxidized spent fuel, PNL-SA20371 (1992).
- 4) W. J. Gray, J. C. Trait, S. A. Steward, D. W. Shoesmith, "Interlaboratory comparison of UO_2 dissolution rates", PNL-SA-23748 (1994).

감사의 글 : U50GWd/tU 시편을 제작해 주신 주준식 님께 감사드립니다.